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

심 민 임실군수, 군청 구내식당 비대면 식사 전격 실시

심 민 임실군수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심 군수는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정부와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본격화한 만큼 우리 군에서도 확산 운동에 동참해 코로나 사태극복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 군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거리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의 비대면 식사를 즉각 실시키

로 했다. 비대면 식사는 앞자리에 마주앉아 식사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식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군은 코로나 사태 직후, 지역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구내식당 배식분량을 160명에서 80명으로 대폭 축소 한 터라 비대면 식사에 대한 큰 혼란 없이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했다.

또한 안내문을 통해 식당 이용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과 식당 내 이동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식사 대기 시 앞사람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구내식당 이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비대면 식사를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시해 전 군민에게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군은 청사 출입구를 일원화하고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출입자를 대상으로 손 소독제 사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확산을 적극 주문한 만큼 우리 군도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며 "향후 1~2주간 종교집회 등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군민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난 6일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남원시,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사매면 노봉마을에 펜션 5동 임대해 단기 체험방식으로 운영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에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 들어선다.

지난 6일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퇴자 공동체마을의 조성을 본격화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최명희 작가의 '흔들분화관'이 소재한 사매면 노봉마을에 펜션 5동을 임대해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조성한다.

특히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공무원 등 공직 연금수급자 5세대에 한해 단기 체험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단은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했다.

최종 선정된 입주자들은 오는 5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주해 자치규약

에 따라 자율적으로 농작물을 키우고, 봉사활동과 건강관리 및 자연·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남원시에서는 정착에 필요한 농촌관광, 귀농귀촌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텃밭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단기체험 이외에도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등을 활용한 장기체험(8개월)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고생들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초고속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상생 도모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코로나19 피해극복 남원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남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전통시장 및 지역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을 3월 9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10% 특별할인판매를 한다고 밝혔다.

구매자는 할인가간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 전북은행, 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한, 등에서 개인 월 50만 원 한도 내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남원시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남원사랑상품권을 5월 발행을 목표로 가맹점에 모집하고 있어, 구매자들은 은행을 가지 않아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가맹점주도

은행을 가지 않고 환전이 가능해 사용 편리성을 크게 향상되고 부정유통 방지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이번 특별할인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적발된 가맹점이나 구매자에게는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완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남원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결정했다"면서, "상품권 특별할인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착한임대료운동 등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도시 새뜰마을사업' 남계지구 선정

5년 연속 쾌거... 주택정비 등 4개 분야 42억원 규모

순창군이 지난 6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순창읍 남계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전국 42개 지자체가 응모해 22개 지구를 최종선정했으며, 1차 전북도 평가와 2차 균형위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6월부터 공모신청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등 현장조사를 완료했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번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순창읍 남계지구는 4개 마을(시가

군덕, 사정1·2)로 전체 가구수 230가구 중 공·폐가 11.3%, 30년이상 주택 74%, 슬레이트 주택 50%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생활환경이 매우 취약하여 재해, 안전, 위생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마을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택정비, 생활, 위생, 안전 등 인프라정비, 마을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사업 등이다.

군은 올해 5년 연속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돼 취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분야 국비 30여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 부담도 덜게 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국비 30억과 도비 2억7,600만원 국비 6억 4,800만원 자부담 4억 9,300만원 등 총 42억 4,100만원을 예비 사업계획서에 반영해 신청했다. 또한 군은 이달 중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남계지구는 군 소재지 대표적 주거 취약지로 사회적, 물리적, 공간적 소외로 주민 삶의 질이 취약한 곳이다"면서 "이번 새뜰마을사업을 통한 낙후지역 불균형 해소와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여 남계지구를 새롭게 탈바꿈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코로나19 임실N치즈 전 제품 10% 특별 할인 행사

임실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인 청정임실표 '임실N치즈' 유제품에 대한 특별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 주관으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임실군청 로비에서 민원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실N치즈 전 제품에 대하여 10%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가공업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 유제품 판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최소한의 판매인력을 투입하여 유가공업체(15개소)가 직접 판촉활동을 하는 대신 임실N치즈 전문 유통조직인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에서 판매와 홍보를 실시했다.

군은 앞선 5월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을 위해 청정지역 임실에서 만든 2,164만원 상당의 임실N치즈를 대량

전달했다.

격려물품은 임실군과 임실치즈농협, 친한F&B 치즈소시지, 이플영농조합 등이 뜻을 함께해 이뤄지는 등 민관의 훈훈한 마음을 전하고, 임실N치즈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심 민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얻고 유제품 소비촉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고자 마련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 영유아 마스크 우선 공급

임실군이 저소득층에 이어 영유아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등에 유아용 마스크를 긴급 공급했다.

군은 긴급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만2세~만6세)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영유아 마스크 1000개를 긴급 제공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영유아용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들의 마스크 수급문제에 보탬을 주기 위해 긴급예산을 지원하여 이뤄졌다.

마스크 공급은 시설보육 아동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 9개소와 유치원 12개소 등 총 21개소에 우선 공급했으며, 일반 가정보육 아동도 파악 후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뤄진다.

군은 마스크 대량과 정부의 공적물량 확대 조치로 마스크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마스크를 확보해 이미 배부된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방역취약세대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기축질병 차단방역 총력

순창군이 악성 기축질병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선제적 차단방역에 나서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직후 농업기술센터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돼지 19농가 3만 2천여두의 사육농가에 대해 전화 및 문자 발송 방역 예찰과 농장 내 외주변 소독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중이다.

또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기축질병 차단방역 특별방역기간(10월 ~ 3월)에는 우제류 및 가금류 관련 축산인·축산시설·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조치 방역태세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은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축질병에 대한 방역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축산 농가들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별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